

# 광주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 전국 두번째

### 작년 10만명당 4276건...전남 3594건 전국 7번째

### 강도·절도·폭력사건 줄고 성폭력·보험사기는 늘어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인구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돼 치안 부재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4년 전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지만 전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1일 경찰청이 최근 5년(2010~2014년)간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해 내놓은 '2014 범죄통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해 10만 명당 4275.9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5378.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에서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대전(3077.2건)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28%(1198.7건)나 높았다. 광주에 이어 부산 3920.2건, 대구 3892.6건, 울산 3616.6건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3594.1건으로 전국 7번째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등 '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역시 제주에 이어 가장 높았다.

광주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에서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0년 6만2055

건에서 지난해 6만4822건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6만3197건의 범죄가 발생, 4년 전인 2010년(7만1355건)에 비해 8158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2011~2014년)간 광주의 범죄 종류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은 비슷한 반면 절도와 폭력은 감소하고, 지능범죄와 경제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력 사건 중에서는 강도가 2011년 147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성폭력 범죄는 반대로 725건에서 834건으로 증가했다. 살인과 살인미수는 비슷한 수치로 조사됐다.

절도는 1만3367건(2011년)에서 1만390건(2014년)으로 약 22%(2977건) 가량 줄어들었고, 폭력 범죄도 1만1276건에서 1만195건으로 약 9.5%(1081건) 감소했다.

최근 보험사기 등의 영향으로 지능범죄와 경제범죄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기·뇌물수수 등 지능범죄는 지난 2011년 7951건에서 지난해 9625건으로 1674건(17%) 늘었고, 경제범죄는 2038건에서 2321건으로 283건(14%) 증가했다.

음란물 유포와 공연음란 등 풍속범죄도 지난 2011년 1074건에서 지난해 722건으로 352건(33%) 줄어들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 누리 예산편성 거부 결의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올릴 것을 결의한 지난 7월 총회 내용을 오늘 임시총회에서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교육감 중 부산시, 경남도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충북도는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YMCA '인권 골든벨'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무진관에서 열린 골든벨에서 학생들이 인권 관련 문제를 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개소 10주년을 맞아 '모이자 인권'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골든벨 행사에는 광주지역 고교생 50팀 100여명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간 어린이집 26일부터 집단 휴원...전남 일부 참여

### 정부 보육료 삭감 항의...광주는 30일 토론회서 결정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이달 말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전남에서도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광주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 향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만 40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다.

전남에서는 국공립 등 전체 어린이집 1247곳 중 408곳이 민간어린이집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2만3700여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지역 민간어린이집은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이성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남 지부 회장은 "집단 휴원은 실시하지 않고, 그동안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했던 점을 감안해 희망자에 한해 오는 29~30일

연월차 휴가를 줄 계획"이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보육교사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이 단체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혹시 모를 대란을 우려해 대체 교사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학부모들에게 '29~30일 어린이집별 보육교사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설명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광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인기자 kki@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4 해질 17:50  
 일출 14:17 일몰 00:28

대체로 맑음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4/26	보성	맑음	10/24
목포	맑음	14/23	순천	맑음	14/25
여수	맑음	17/22	영광	맑음	12/25
나주	맑음	10/26	진도	맑음	11/24
완도	맑음	14/23	전주	맑음	12/25
구례	맑음	10/25	군산	맑음	13/23
강진	맑음	11/24	남원	맑음	9/25
해남	맑음	10/24	축산도	맑음	16/21
장성	맑음	10/25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0.5~2.0
남해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면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주의
- 보통: 운동
- 낮음: 산불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8:28	21:20	01:44	13:55
	03:48	16:49	09:39	23:17

◇주간 날씨

날짜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씨	☀	☀	☀	☀	☀	☀	☀
기온	14/25	13/23	12/23	12/21	12/19	11/19	10/18

## 우리 이웃 돕는 '광주 서구 착한가게'

### 314곳 성금 모금...홀몸노인·한 부모가정 도와

"양동 남진택소 사장님 5만원, 양동 일월철물 주인 아저씨 3만원, 금호1동 비순치과 10만원, 금호2동 장수마을 풍천장어집 10만원..."

광주시 서구 양3동 동양천막 장종연(52)씨는 매일 5만원씩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하고 있다. 장씨의 후원은 서구청을 통해 양3동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인다.

광주시 서구는 장종연씨 천막집처럼 '우리 이웃은 우리가 돕는다'는 마음으로 착한가게 행렬에 동참한 가게가 314곳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청 1층에 자리한 '사과나무 카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14곳이 동참, 매월 1000만원이 모금돼 이 성금으로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는 착한가게들이 매달 구청에 모인 성금을 통해 양3동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맞춤형 특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KTX 이용 34% 늘고 고속버스 22% '뚝'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전 광주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시 절반이 버스를 이용했지만 개통 후에는 60%가량이 KTX를 이용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9~20일 광주 승정역 이용객 300명에게 타지 방문시 교통수단을 묻은 결과 KTX 개통전에는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자가 50.7%인 152명이었다. 호남고속철 개통전 KTX 이용객은 76명(25.4%)에 그쳤으며 일반열차 34명(11.3%), 승용차 25명(8.3%), 항공 13명(4.3%) 등 순이었다.

그러나 KTX 개통 이후 교통수단별 이용현황은 크게 바뀌었다.

KTX가 177명(59.0%), 고속·시외버스 86명(28.7%), 일반열차 21명(7.0%), 항공 10명(3.3%), 승용차 6명(2.0%) 등으로 나타났다. KTX 이용객은 33.6% 포인트 증가했으며 고속·시외버스는 22% 포인트 감소했다. /최원일기자 cki@

2015 대한민국 **국화향전** 2015.10.23. 금~11.8. 일 **함평엑스포공원**

길이33.3m, 높이8m 규모의 거대한 광화문과 국화로 재탄생되는 화려한 조형물들을 볼 수 있는 곳!  
 국화향기가 들려주는 가을이야기!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문의 |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Tel | 061)320-3364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FFA 농촌진흥청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NH농협 함평군지부